



남원 죽항동지사협, 착한 가게 8곳 협판 증정

남원시 죽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하브화 연합모금사업에 참여한 사업체 8곳에 착한 가게 협판을 증정했다. 이번 증정 업체는 명문당인쇄사, 오성이용원, 우리기름집, 동문당구구물, 유니네일&스튜디오티티, 은달래, 현대자동차 블루핸즈하정점, 거제져 등이다.

죽항동의 복지하브화 연합모금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죽항동 협의체가 작은 복지관이 되어 주민 주도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인 후원금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이며, 주민, 단체, 기업, 상가 등 참여가 가능하고 자율성·자발성이 기초해 “서로 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한 조각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복지팀(620-4750/4743)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 번암면 이장단협·한우협, 풀베기 환경정화 활동

장수군 번암면 이장단협의회(의회장 박장옥)와 한우협회 번암지회(지회장 김의광)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 시작과 ‘제7회 번암 물빛축제’를 맞아 25일~26일 물빛공원 일대 하천변과 동화댐 둘레길 풀베기 작업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번암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깨끗한 번암면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오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번암 물빛축제’ 행사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박장옥 이장협의회장은 “매년 실시하는 풀베기 작업이지만 물빛축제에는 각 마을 이장님들이 번암 물빛축제에 관심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주셨다”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이천 일찍부터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 번암면 이장협의회와 한우협회 번암지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발전에 사회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번암 물빛축제’는 번암면 동화댐 제방 아래 위치한 물빛공원 일대 섬진강 최상류 요천면에서 ‘△수증 보울찾기△수박 빨리먹기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2일간 개최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청춘캠핑 버스킹 음악회 버스커 모집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오는 8월 1일까지 ‘청춘 캠핑 버스킹 음악회’에 참여할 버스커를 모집한다.

덕유산국립공원 ‘청춘캠핑 버스킹 음악회’는 8월에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이영장 소집회장에서 공연 문화를 선보이며 이영객 및 탐방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 대상은 아외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한 음악공연팀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선정 시 소정의 공연비와 덕유대 이영장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320-3833)로 하면 된다.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다양한 공연과 함께 덕유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추억을 간직 할 수 있는 특별한 버스킹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범농협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임인)는 2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김제시 백구면 오이 시설하우스 농가를 찾아 긴급 재해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백구농협(조합장 장승환), 농협경제지주 양곡사업부(부장 허윤준), 전북양곡지재단 농신보전복지 역보증센터(센터장 김인순) 등 임직원 3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하우스 내 오이줄기제거, 비닐 정리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임인 지부장은 “이번 폭우에 농작물 피해로 농업인들의 삶이 더 어렵다”며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등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7700여 캠버리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누빈다

벨기에 100여명을 시작으로 17개국 참가자들 관광프로그램 시작… 사전·후 4박 5일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에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 가운데 전북도가 준비한 관광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한 외국 대원들이 전북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벨기에 캠버리 운영요원 100여명은 27일 강천산 군립공원, 체계산 출렁다리, 고추장마을 등 순창을 방문,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됐다.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은 캠버리 참가를 위한 사전 입국자와 행사 후 잔류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사전 10개, 사후 8개 등 모두 18 개 코스에서 4박 5일간 진행되는 관광프로그램이다.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을 비롯한 17개국 7,280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한류 문화체험, 전북 미집 탐방 유네스코 문화유산 역사 기행 등 전북의 매력을 만끽하게 된다.

시전관 기간 중 도내 관광은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후관광 기간에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에서 머무르게 된다.

29일에는 벨기에 1,200여명이 순창 고추장마을 체계산 출렁다리,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화거리 등을 방문하고, 30일에는 폴란드, 대만, 멕시코 등 500여명이



무주타워도원 순창 강천산, 김제 벽골제, 군산 선유도 등을 관광한다.

31일에는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을 비롯한 17개국 7,280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한류 문화체험, 전북 미집 탐방 유네스코 문화유산 역사 기행 등 전북의 매력을 만끽하게 된다.

시전관 기간 중 도내 관광은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후관광 기간에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에서 머무르게 된다.

29일에는 벨기에 1,200여명이 순창 고추장마을 체계산 출렁다리,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화거리 등을 방문하고, 30일에는 폴란드, 대만, 멕시코 등 500여명이

/김재훈 기자



김효진 임실경찰서장, 일회용품 ZERO 챌린지

임실경찰서는 김효진 임실서장이 일회용품 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ZERO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시작했으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실천 운동이다.

챌린지 참여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후속 참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손기록으로 1(일회용품)과 0(제로)을 표시한 캠페인 인증 사진을 활용한 뒤 다음 주자 1명을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식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김효진 서장은 삼민 임실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며 다음 참여자로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명했다.

김효진 서장은 “임실경찰서 전 직원은 일회용품 컵과 페트병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과 텁블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문화 확산을 노력, 일회용품 ZERO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에 임실군민들도 적극 동참하여 탄소중립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35사단 군산대대 등 군산지역 호우피해 복구 전력

35사단 군산대대, 공군38전대, 금마 7공수특전여단이 군산 지역 호우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구암동 주택 피해현장 등 36건 594명을 투입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로더 등 장비를 지원해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26일까지 시에 피해 접수된 곳은 12개 읍면동 46건으로 35사단 군산대대, 공군38전대, 금마 7공수특전여단은 이 중 11개 읍면동 36건을 처리했다.

특히, 35사단 군산대대는 36건 중 31건 449명을 투입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장비투입이 어려운 토사가 유입된 곳에 토사제거, 유해수목 제거 등 손길을 보탰다.

이들은 장비투입이 어려운 곳과 피해 복구가 급한 곳에 먼저 투입해 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 아들, 손자처럼 친근하게 다가와 이제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한 군인은 “막상 현장에 나와보니 생각보



다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아 마음이 안 좋다”면서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남다른 지역 사랑 행보 이어가

군산시 성산면 출신의 대창그룹 조시영 회장이 올해도 고향을 방문해 남다른 지역 사랑 행보를 이어갔다.

27일 성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5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천 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성산초등학교와 성산면을 방문해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지역 현안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자생단체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회장은 “성산면에 엄청난 일의 호우가 있었음에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던 것은 정말 다행이다”며 “고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마을 어르신들과 면사무소에 고마움을 느끼고 남은 수해 피해 복구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우진 성산면장은 “매년 고향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



한 성금을 전달하는 조시영 회장의 후원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소중한 성금은 성산면 지역 주민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회답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경수 광원기계 대표, 김제시에 성금 1000만원 기탁

(유)광원기계 정경수 대표가 27일 김제시를 찾아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리며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2021년 9월 500만 원의 성금 기탁에 이어, 2022년 8월 700만 원의 성금 기탁으로 관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유)광원기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쾌적 계층을 위한 마음을 기우듯 성금 액수를 더 늘려 감동을 주고 있다.

정경수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성금을 기탁해주신 (유)광원기계에 감사드리며, 장미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김제시에 따뜻한 마음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이웃돕기 지정기탁성금을 투입해 긴급 집수리를 지원 등 재해 구호에 민첩을 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군여성단체협, 반딧불축제제전위에 간식 전달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는 제 27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준비하는 (사)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운영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26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임원간들이 모여 간식 꾸러미(토스트, 과일 컵 등) 30인분을 포장하여 전달하였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 동안 운영되는 제 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3무(無)축제가 되기 위하여 무주군 전 공직자와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성공작이고 역동적인 축제분위기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지향하는 축제위상에 걸맞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운영진과 관계자분들을 방문하여 작지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운영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천천면, 꽃길조성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앞장

장수군 천천면은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26일 천천면 시가지 및 면사무소 주변 곳곳에 꽃을 심었다.

이날 꽃길 조성에는 천천면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수국 및 포테리카를 길 곳곳에 심어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에 앞장섰다.

배종수 천천면장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제1회 천천면 금강 다슬기 축제로 천천면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이를다운 천천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참여해준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여 앞으로도 아름다운 천천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